

Sasol-NPC, 에틸렌 100만톤 합작

Ethane 100만톤 크래커 건설 ... LDPE 및 MDPE 플랜트도 포함

NPC(National Petrochemical)이 Sasol Polymers와 합작기업을 설립키로 합의하고 이란 Bandar Assaluyeh에 Olefins 9 생산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.

합작기업의 이름은 ASP(Arya Sasol Polymers)로 NPC의 100% 자회사인 Pars Petrochemical 및 Sasol의 자회사인 Sasol Polymer가 공동 소유할 것으로 보인다.

Olefins 9 프로젝트는 NPC 및 BP의 합작으로 계획됐으나, BP가 수요전망 악화를 이유로 2002년 협상에서 철수했다.

Olefins 9 프로젝트는 Ethane 100만톤 크래커를 비롯해 LDPE 및 MDPE 각각 30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. Ethylene 플랜트가 건설중에 있고 2004년 하반기 완공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PE 플랜트는 2005년 상업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.

Technip-Coflexip 및 Nargan이 2억유로의 엔지니어링 및 조달 계약을 수주해 크래커 및 LDPE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데, LDPE 플랜트는 Stamicarbon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다. Uhde는 MDPE 플랜트 건설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Basell 기술을 사용할 계획이다.

Sasol은 Petronas과 Sabic의 합작기업인 Petlin의 지분 40%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Kertih의 LDPE 22만5000톤 플랜트를 가동했다.

또 Optimal Olefins의 지분 12%를 보유하고 있는데, Optimal은 60만톤 크래커를 가동해 Petlin으로 Ethylene을 공급한다. Petronas 및 Dow Chemical도 Optimal의 잔여지분을 소유하고 있다.

Sasol은 이란에 10억달러를 투자, GTL(Gas-to-Liquids) 플랜트 건설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7/21>